

## 대학도서관대회 회의록

일 시 : 1970년 5월 18일~19일(2일간)

장 소 : 부산교육대학 강당

- 회 순 : 1. 개회선언      6. 기념강연  
 2. 국민의례          7. 의장선출  
 3. 국민교육헌장 낭독 8. 의제발표 및 협의회  
 4. 개 회 사            9. 결의문 및 건의사항 채택  
 5. 격려사 및 축사      10. 폐 회

참가인원 : 회원 114명

### <회의내용>

회순에 따라 부산교육대학 도서관장 이규범 선생의 사회로 대회가 개최되어 국민의례에 이어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개회사 : 도협 회장(최근만 사무국장 대독)

격려사 : 박찬우(부산교육대학장)

축 사 : 박경원(한도협부산지구협의회회장 · 경남고등학교장)

기념강연 : 정중화(동아대학교 교수 겸 박물관장)

— 10분간 휴식 —

의장선출 : 의장선출은 사회자(이규범)가 추천하는 분을 만장일치로 추대키로하여 한국의국어대학 도서관장 이상조(李相助)선생이 의장으로 추대되다.

의장인사 : 지난 제 8차 대회를 제가 봉직하는 대학에서 개최한 관계로 의장직을 맡아 보았습니다만 다시 중책을 맡게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 일동 박수 —

### <의제발표>

의 장(이상조) : 지금부터 회순에 따라 의제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1. 학술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국가조직의 필요  
정필모(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장)
2. 대학도서관 봉사기능의 확대와 개선에 대하여  
윤혜승(영남대학교 도서관 사서장)
3.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참고봉사의 중요성  
김세익(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4. 대학의 교양학부 과정에 도서관학 강의의 필요성  
이규범(부산교육대학 도서관장)

### <협 의 회>

의 장(이상조) : 이 시간은 협의시간입니다. 이제까

지 여러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고 토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일동 찬성하다 —

의 장(이상조) : 그러면 먼저 발표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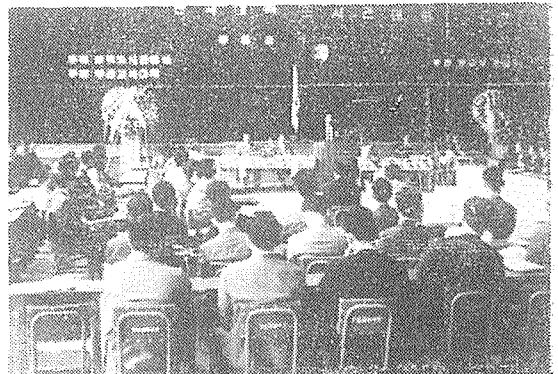
정필모(중앙대학교) :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질의가 계시면 이시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김기열(이사벨여고 교감) : 오늘 의제발표해 주신 분들이 열렬하게 주장하신 문제들이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정말 한국의 도서관 발전에 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박희영(외국어대학도서관 사서장) : 우리 대학은 외국어대학이란 특수성으로 해서 입학하기 힘든 외국어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은 UNESCO Coupon 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없는 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생기는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도서관협회가 UNESCO Coupon 을 배정 받아 대행할 수는 없는지요

최근만(사무국장) : 도협이 이 문제 뿐 만이 아니고 회원 도서관에 도서구입 대행을 하여 신속하고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오래 전부터 구상해 왔습니다만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UNESCO 의 Coupon 배정을 대행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회원도서관에서 과연 협회만을 통하여 구입하게 되겠는지를 계속 연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김희수(전남대학교 도서관) : 저희 도서관에서는 현재 각 대학에서 발행되는 논문집의 입수가 잘 안되는데 대학도서관 상호간에 간행물 교환이 잘되었으면 합



(대학도서관대회 회의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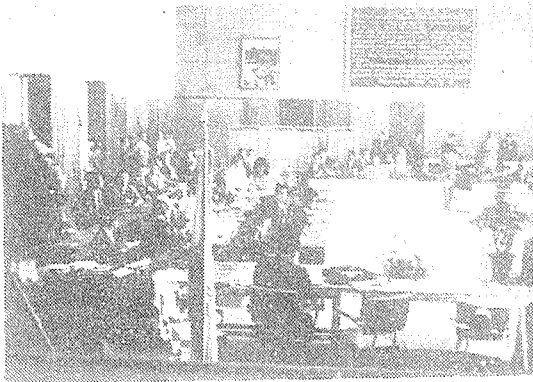
니다.

**정필모**(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장) : 제가 알기로는 잘 교환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대학만 하더라도 논문집이 나오면 건국의 대학도서관에 보내고 있고 또 다른 대학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혹 안오는 것이 있으면 기증의뢰를 내시면 보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전남대학교 도서관) : 도서관 업무를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분류 목록이 적은 노력과 경비로 쉽게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필모**(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장) : 현재 인쇄카아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혁**(충북대학교 도서관) : 대학 뿐 만이 아니라 전 도서관들이 효과적인 자료교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도서관대회 협의회 모습)

**윤혜승**(영남대학교 도서관 사서장) :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종합목록 작성에 관한 의견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우리 나라의 실정이 이를 실현시키기에는 아직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머지 않아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압니다.

**고찬우**(국민대학 도서관) :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도서관행정이 체계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문교부에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기구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으면 합니다.

**김고명**(한국해양대학 도서관) : 사서직 특수근무수당이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지급되는 모양인데 대학도서관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 장**(이장조) : 사서직 특수근무수당 지급문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법에 같은 직책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처우를 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 일입니다만 국립이나 국회에서 대우받는 것을 열었으니 점차적으로 우리들에게도 대우해 주도록 밀고 나아가는 것이 단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립기관이 이렇게 시행해 나아가면 사립대학에서도 이에 준해서 대우받도록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어 갈 것으로 믿습니다.

**정필모**(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장) : 우리 나라의 도서관법 개정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는 법 제1조에 도서관의 설립주체가 명확히 명시되어서 정부의 의사로서 신념있는 정책과 시책으로 국가가 이 사업을 운영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도서관사업의 주체가 모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정하고 우리 나라도 적어도 국무총리가 주관하거나 혹은 국무총리아래 국가도서관심의기관이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최근만**(사무국장) 먼저 회원 여러분 앞에 섭섭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 회원계위와 관계가 존경하던 본협회 제6대 회장을 역임하신 이흥직박사께서 오늘 아침 새벽에 작고하셨다는 서울로 부터의 장거리전화로 방금 받았습니니다. 이박사님의 별세를 애도하고 우리 회원 모두가 잠시 고인의 명복을 빌었으면 합니다.  
—참석한 회원 모두가 잠시 충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다—

**최근만**(사무국장) : 지금까지 회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서직 특수근무수당은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관계 당국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이 이미 지급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이 금년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71년부터는 국립대학의 사서에게도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기관이나 대학 뿐 만 아니라 전 사서직에게 수당이 지급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거론된 건의안이 번번히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회원도 계십니다만 우리들의 입장과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기에문에 계속 이해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였습니다만 UNESCO의 Coupon에 의한 외국도서와 학술잡지 구입문제는 도협이 대행기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의 사무실 규모나 사무국의 일손이 모자라는 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회원과 도서관이 협력만 해 주신다면 협회사업으로

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협회도 정보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해야 할 것이고 그럴려면 자체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술잡지의 복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성있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회원 여러 분들께서 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판사업을 적극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안(진주농대 도서관) :** 우리 나라의 대학도서관 설치기준령을 보면 대학(교)도서관이 비치해야 할 장서가 수량의 규정만 되어 있고 질적인 규정은 전혀 없는데 이점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윤혜승(영남대학교 도서관 사서장) :** 이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대학도서관 설치기준령이 독립된 것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전남대학교 도서관) :** 대학의 교양학부과정에 도서관학 강좌를 설치토록 하자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이규범(부산교육대학 도서관장) :** 이 문제는 문교부의 대학교육연구회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학기부터 중앙대학교에서 교양학부과정에 도서관학 강좌를 설치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역시 사립대학에서는 경영자의 계량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립대학은 법적으로 제약이 받으니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 현장에서 도서관학 강좌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고 좋은 효과를 얻는 경험을 갖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생각할 때 우리들은 법적인 규정이나 행정력을 의존하기에 앞서서 잠시라도 쉬지 말고 우리들 스스로가 교육현장에서 힘쓰고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의 장(이상조) :** 협의하는 시간은 이만 종결짓고 다음 결의 및 건의사항 채택의 순서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 일동 찬성하다 —

**의 장(이상조) :** 결의 및 건의사항은 이제까지 충분히 협의의 검토되었으니 도협에다 위임하여 건의사항과 내용 및 문안을 정리하여 작성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일동 찬성하다 —

**의 장(이상조) :** 오랜 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회원 여러 분들의 열렬하고 진지한 협의와 협력해 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이 대회를 마치게 되었습니

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계에서 존경을 받고 계신 최규중 선생님의 이야기를 빌리면, 우리들은 두가지의 기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교육은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 해보겠다는 신념 즉 철학이 없으면 어려운 일을 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학도서관폐회 기념촬영)

둘째는, 그 일을 하는데 즉 자기가 믿는 일에는 미쳐야 만 한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같이 열렬하지 않고는 무슨 일이든지 해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들 도서관인 모두가 이런 태도로 도서관 사업에 정력을 쏟는다면 우리의 소망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 지리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학교에 돌아가셔서 보다 더 열심히 분투 노력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 “수고하셨습니다”하고 인사하며 우뢰와 같은 박수를 보내다—

**최근만(사무국장) :** 한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협회가 장학금 모금 운동을 벌여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명을 밝히고자 하지 않는 관장님께서 장학기금으로 1만원을 성금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회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력하시고, 많은 참여가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번 대회를 위해 수고하신 본 교육대학 이규범 관장님과 직원 일동에게 도협을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회원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우뢰와 같은 박수로 노고를 치하하다—

**이규범(부산교육대학 도서관장) :** 안내의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을 불편한 장소에서 오랜시간을 모셨습니다.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뒤에 간소한 소연이나마 마련하고 회원 여러분을 위로코자 합니다. 자리도 협소하신테고 하오니 삼삼

오오 다정하게 환담하시고 심신의 피로를 풀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회장은 회원들의 활짝 핀 웃음과 환담 속에 서서히 어둠이 오고, 섭섭한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 학교도서관대회 회의록

일 시 : 1970년 6월 11일~13일(3일간)

장 소 : 호수돈여자중고등학교(대전시)

- |               |                   |
|---------------|-------------------|
| 회 순 : 1. 개회선언 | 8. 주제발표           |
| 2. 국민의례       | 9. 도서관의 밤         |
| 3. 국민교육헌장 낭독  | 10. 시도별 현황보고      |
| 4. 개회사        | 11. 협의회           |
| 5. 격려사 및 축사   | 12. 결의 및 건의사항 채택  |
| 6. 기념강연       | 13. 폐회            |
| 7. 의장선출       | 14. 도서관 견학 및 산업시찰 |

참가인원 : 367명

### <회의 내용>

권양원(충남교육위원회)장학사의 사회로 개회가 선언되어 회순에 따라 국민의례와 국민교육헌장 낭독이 이어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개 화 사 : 도협회장(최근만 사무국장 대독)
- 격 려 사 : 조중엽(충남교육위원회 교육감)
- 축 사 : 충청남도지사(안갑준 부지사 대독)
- 기념강연 : 유인중박사(대전대학 교수)

주제; “현대교육 사조와 학교도서관”

의장선출: 의장선출은 사회자가 추천하는 분을 추대키로 하여 손병민 호수돈여고 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다.

### <의제발표>

의장(손병민) : 회순에 의해서 지금부터 의제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 ① 학생들의 민주시민성 양성을 위한 독서지도  
조기홍 (대전 성모여자중학교 사서교사)
- ② 자율학습을 돕는 학교도서관 운영  
윤영길 (동덕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 ③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을 돕는 학교 도서관 운영  
방안  
이순규 (하양국민학교 교장)
- ④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개선  
조재후 (부산시교육위원회 장학사)

### <도서관의 밤>

의제발표를 마친 다음 성모국민학교 합주단의 마르티니 작곡 “가보트”의 연주로 시작된 “도서관의 밤”이 베풀어 졌다. 제1.2부로 마련된 동 간치는 무용과 아동극 및 영화 등 다채로운 Program으로 전국의 학교도서관에서 참석한 회원들을 흥겹고 따뜻하게 위로했다.

### <시·도별 현황보고>

의장(손병민) 지금부터 각 지방별 학교 도서관 현황발표가 있겠습니다.

—시·도별 현황은 강원도를 제외한 전지역의 현황이 발표되었으며 제주도(김인권)와 충청북도(하동식)는 팔호내의 분들이 대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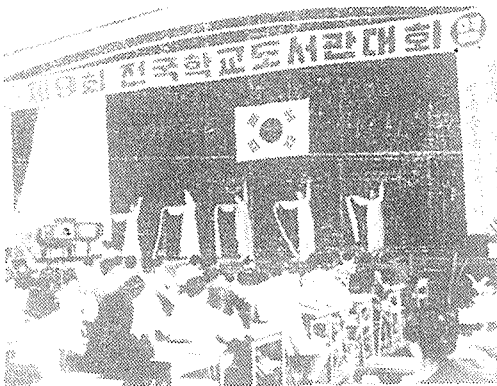
### <협의회>

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으나 다음 3가지 안건이 채택됨.

안건

1. 육성회 발족후의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도서비 징수문제
2. 문교부와 시·도 교육위원회에 도서관담당장학관 및 장학사 배치 문제
3. 초·중·고등학교용 우량도서 선정사업문제
4. 폐기도서의 처리방안
5. 도서관법 개정문제

—위의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진지한 토의 끝에 아래와 같이 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협의 및 건의순서 등 회의를 모두 마친



(학교도서관대회에서 개최된 도서관의 밤)